

2023년 12월 3일 21시에 북톡방에서
 소셜전략연구소 송영우가 소개하다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미·중 패권전쟁과 변화하는 세계질서의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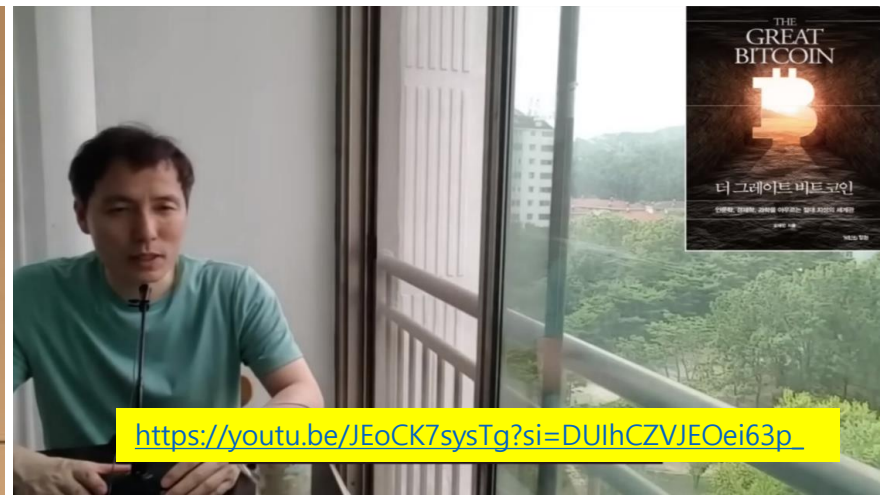


오태민 지음

Bitcoin and the Geopolitics of the Dollar

2차 세계대전, 브레턴우즈 시스템, 미·중 갈등 등
 '미래를 지배할 돈을 이해하는 필수 지정학'

거인의 정원



오태민

오태버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 학과 겸임교수다. 2014년에 우연히 비트코인을 발견한 이후, 깊은 사유와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해석하고 알리고 있다. 유튜브 「지혜의 족보」는 그가 비트코인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2017년부터 약 5년간 <한경비즈니스>에 '비트코인 A to Z'를 연재했고, 2022년에는 EBS에서 공영방송 최초로 '비트코인'을 주제로 한 그의 강연 「오태민의 나만 모르는 비트코인(12회)」을 방영할 정도로, 누군가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가 만든 논리와 설명을 한 번은 거치게 되어 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 네트워크 세계의 도래와 탈중앙 분산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주장한 《여백의 질서》(1993, 일금)의 출판을 주도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출간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여백의 질서》(1993), 《마중물 논술》(2007), 《인문학적 상상력》(2012), 《경제학적 상상력》(2013), 《비트코인은 강했다》(2014), 《스마트 콘트랙: 신뢰혁명》(2018), 《비트코인, 지혜의 족보》(2020), 《메타버스와 돈의 미래》(2022),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2023)이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박살나는 화폐 가치
의미를 상실한 중앙의 역할

비트코인의 시대가 다가온다



금융 시스템, 인플레이션, 도덕적 해이, 전쟁
그 어떤 것에도 위협받지 않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약점이 없다.

국내 비트코인 최고권위자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학과 겸임교수
오택버스(주) 대표이사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우수 기관 및 대학 초청 강의

끊임없이 증명되는 비트코인의 가치

페라리 "美서 결제허용, 내년엔 유럽"

-로이터통신, 2023.10.14.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3년에 걸쳐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 1500억~2000억 달러가 유입될 것

-前 블랙록 임원, 2023.10.05.

중국 법원 '비트코인은 고유의 디지털통화' 인정

-중국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 보고서, 2023.09.25.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비트코인 전망치를
12만달러로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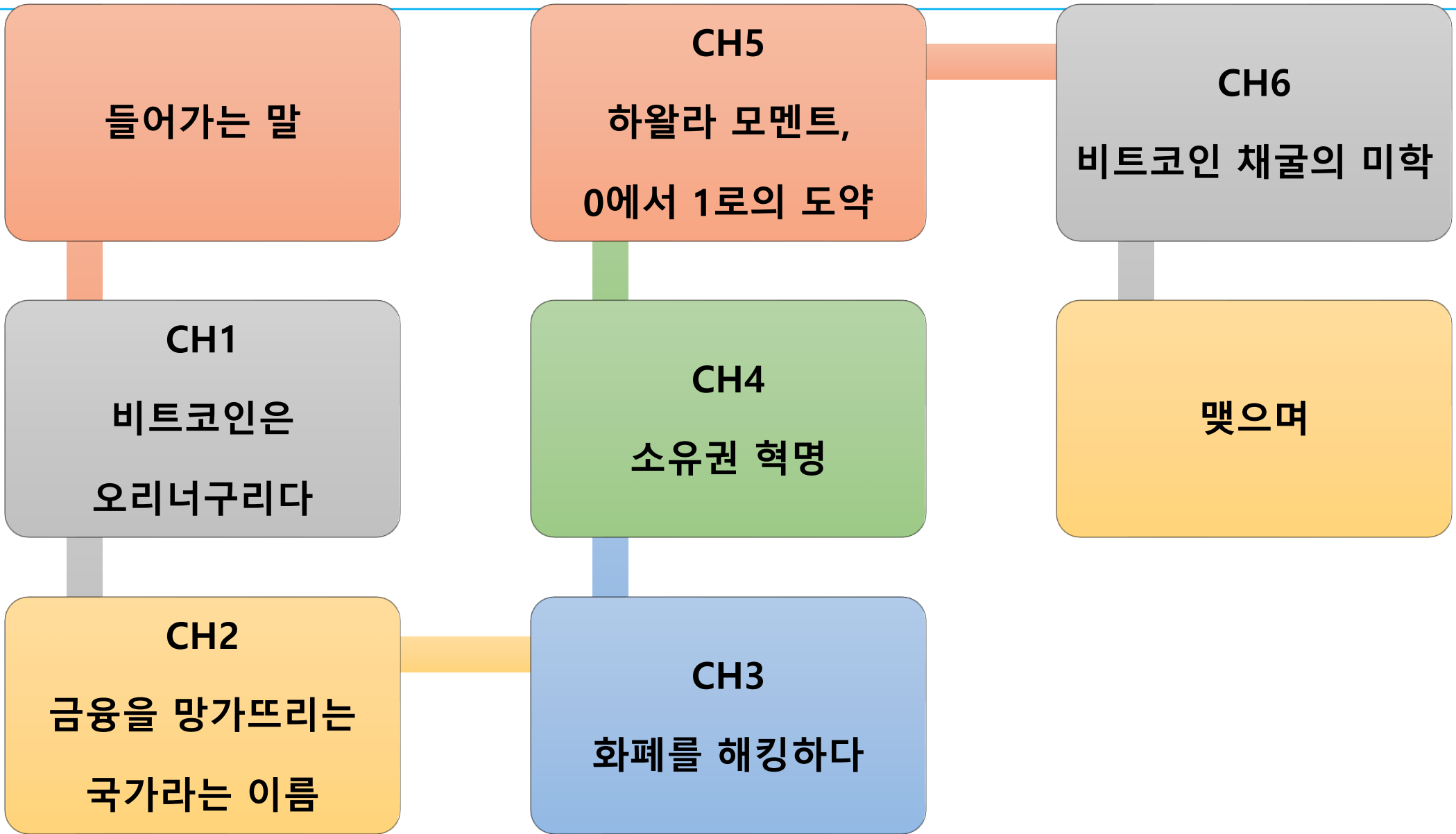
-블룸버그 통신, 2023.07.10.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담보대출 시작

-블룸버그 통신, 2022.04.29

다가오는 거대한 기회, 비트코인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손해는 당신의 몫이다.

책의 목차와 내용 구성



들어가는 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하나...그레이스케일, SEC 상대 승소

입력 2023.08.30 00:46 수정 2023.08.30 09:00

가가

☆ ↗ 🗨️ 😊 📄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미 항소법원 "SEC 상장거부, 자의적 결정"



오늘의
美 러문도
콤 같은 저
"세계 원전
개국 선언
INDU
578

(852) 5669 5
Crypto HK
香港加密货币
crypto.hongk

51, 1/F, Financial Centre (Tower 2 Lift Lobby)
51樓51號舖 (二座電梯大堂)

- 지난 7년간 여러 회사의 비트코인ETF 승인 거절 ,
- 2023년 6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신청
- 1630년대 일어난 'tulip버블'은 과다하게 부풀려지고 날조 되었음
-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이다.

비트코인은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사물로 단일 상품이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을 투자대상으로 삼는 한, 내부자들에 의해 놀아날 염려가 없다. 거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남보다 더 빨리, 더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 연줄이 필요하지도 않다. 뉴스를 읽어내는 안목이 뉴스를 접하는 순서보다 훨씬 중요하다. 나는 2014년 비트코인을 공부하는 동시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만약 투자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내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이므로 나 자신과의 승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확신했다. 남을 탓할 여지가 없다는 점, 인생에서 그럴 수 있는 승부가 거의 없으므로 이 깨끗한 단판 승부의 매력이 나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나는 승부에서 이겼다. 이겼다는 것이 판명 날 때까지 거의 7년을 절치부심해야 했지만 어쨌건 지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지지 않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겼다고 할 수 있다.

-
- 비트코인은 관료의 재량권이나 회사 내부자들의 탐욕으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시도의 산물이자,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보자면 권력자의 절대반지를 봉인하는 작업이다.



으로 자라났다. 책의 본문에서 다룰 할 피니는 익스트로피안인데, <익스트로피Extropy>는 컴퓨터가 촉발한 기술적 도약이 인간 자체를 진화시킨다는 미래에 대한 초긍정을 표방하는 잡지다. 익스트로피안들은 1990년대에 이미 암호화폐를 AI, 사이보그, 냉동인간 기술들과 함께 인간의 자유를 확장할 도구로 인식했다. 즉, 2008년 발명된 비트코인은 1930년대에 쓰인 《반지의 제왕》, 1960년대 미국 대학가에 퍼진 히피문화, 1970년대에 시작된 미국 반도체와 컴퓨터 산업의 성장,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피어난 기술과 인터넷 이상주의까지 점과 점으로 이어진 긴 선 위에서 출발했다.

비트코인은 분산 시스템에 대한 철학적 열정의 결과물이다. 한마디

2014년 그것도 우연히 검색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발견하기 전까지, 나에게 비트코인의 존재와 이것이 인문학적인 탐구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내 주변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만약 누군가 내게 이야기해 주었더라면 분산화 철학이 낫설지 않았던 나로서는 몇백만 원 정도는 투자하는 모험을 감행했을 것이다. 호기심에서라도 수천개 이상은 구입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 주변에는 이 신물질을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은 둘러댔 여지가 별로 없는 슬픈 현실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지적인 갈라파고스에 속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소

-
- 2022년 가을,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섬
 - 7년간 기업체들에게 제안을 함
 - 발행자가 갖지도 않고 팔지도 않아야 한다. (정부와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제거)
 - 코인은 등기물이 아니라 점유물
 - 내 자신이 단 하나의 코인도 갖지 않겠다. (가족을 보호)
 - 2022년 겨울과 2023년 여름까지 대략 2,0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비트코인의 소스코드를 베껴 화폐현상을 재현
 - 비트코인은 기술이 아니라 특별한 인문학적 사건
 - 비트코인을 하나의 기술로 차용해 비트코인 등장했던 초기와 비슷한 생태계를 재현하는 데 성공

나는 독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잘 안다. 경험칙이지만 비트코인은 설득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책을 쓰고 강연을 하는 것은 한 마리의 개미로서 페로몬을 뿌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설득이 아니라 같은 페로몬에 반응하는 동료^{同流}를 불러 모으려는 퍼포먼스다. 혹은 한 마리의 탐색벌로서 자신이 본 것을 동료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춤추는 것과 같다. 탐색벌은 자기가 발견한 꽃밭이 최고로 좋다고 자랑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다. 춤에는 태양을 기준으로 꽃밭의 방위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하고, 춤추며 흩뿌리는 꽃가루를 통해 꽃밭의 신선도와 규모에 대한 정보도 동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벌 무리는 분산해 파견되었다 돌아온 여러 탐색벌들의 춤을 관찰하고 하나의 춤을 선택한 뒤, 무리를 분산하지 않고 떼지어 날아간다. 이는 꽃피는 시기가 제한된 환경

CH1 비트코인은 오리너구리다

- 1)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의 탄생
- 2) 비트코인이 촉발한 생태계
- 3) 비트코인으로 사고 치다.
- 4) 사토시 나카모토 그리고 할 피니
- 5) 스마트 콘트랙트가 가능한 원리
- 6) 비트코인과 CBDC



비트코인은 코인이 아니다. 거의 무한히 분할 할 수 있는 전자적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코인 혹은 화폐라는 어휘가 경제학자들을 자극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무엇인가?

비트코인은 이중지불(double-spending)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인터넷 결제 시스템이다. 물론 중앙화된 주체의 감독으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인터넷에 접목할 수는 있다. 신용카드나 통신회사를 통한 결제가 그런 방식이다. 인터넷은 원래 중앙이 없는 통신 프로토콜이었다. 따라서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는 원래 중앙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이 없이는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쉽게 말해 이메일처럼 돈을 보낼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한 번 보낸 이메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내듯이 돈을 보내고 나서 다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신뢰받는 제3자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시스템이다.

- 블록체인의 다른 이름은 '분산 장부' 다.
- 조선왕조실록이 온전히 보관된 것은 분산보관 하는 시스템적 지혜 때문이다.
- 블록체인은 분산된 데이터베이스가 동기화 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검증하는 엄격한 테스트 작업, 소위 '작업증명(POW:Proofs of Work)을 수행. 감독 주체 없이 프로그램 자체의 논리에 따른 것
- 돈을 이메일처럼 보낼 수 있게 됨 =>중앙화된 현재의 인터넷이 탈중앙화가 됨. 지금까지는 탈중앙화된 결제시스템이 없었음
- 결국 제3자가 필요하게 되고 인터넷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음.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이 전체 약 70%를 트래픽을 차지

서 추적이 가능하다. 장부의 기록은 많은 컴퓨터가 공유하므로 위조가 불가능하다. 공격자로서는 동시에 여러 컴퓨터의 장부에 들어가 위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에서는 거래장부의 기록권을 놓고 10분마다 경쟁이 벌어지는데 기록권을 획득하면 보상으로 6.25BTC를 받는

- 10분 동안의 거래장부를 묶어 승인된 것을 블록이라고 하고 , 10분마다 와 넣되는 블록들이 하나의 긴 고리(체인)을 이룬다. 전 세계에 흩어진 비트코인 장부들은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래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 1월 3일에 만든 제너시스 블록해더(라면박스 곁에 적는 내용물 요약)의 해시값이다.

000000000019d6689c085ae165831e934ff763ae46a2a6c172b3f-
1b60a8ce26f

CH2 금융을 망가뜨리는 국가라는 이름

- 7) 인간 무리에 대한 서술 그리고 금융의 탄생
- 8) 시간선호 현상으로 탄생한 금융
- 9) 국가가 금융을 망가뜨리는 법
- 10) 열쇠 없는 창고, 비트코인
- 11) 비트코인은 유일한 탈중앙 방법이다.
- 12) 메타버스, 수천 년 전 이미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되다
- 13) 스마트 계약의 탄생
- 14) 저개발국가를 혁명적으로 바꿀 스마트 계약
- 15) 스마트 계약과 모바일 기기의 궁합
- 16) 결제의 최종성을 갖는 비트코인 그리고 페이먼트 전쟁

CH3 화폐를 해킹하다

- 17) 비트코인을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는 환상
- 18) 비트코인은 상품이 아니라 화폐현상이다
- 19) 비트코인 하드포크 프로젝트
- 20) 비트코인으로 하는 화폐 공부 1
- 21) 비트코인으로 하는 화폐 공부 2
- 22) 정부와 화폐
- 23) 이상적인 장부가 이상적인 화폐다

CH4 소유권 혁명

- 24) 호모 사피엔스는 중앙바라기다
- 25) 비트코인은 '소유권'에 대한 혁명이다
- 26) 비트코인은 자본주의 소유 개념을 뒤집는다
- 27) 자본의 추상화 - 채권, 증권
- 28) 세계질서를 초월하는 자산

CH5 하왈라 모멘트, 0에서 1로의 도약

- 29) 송금과 택배의 차이
- 30) 가치를 증명한 비트코인 - 스위스 은행, 이골드, 페이스북
- 31)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 자체다

CH6 비트코인의 채굴의 미학

- 32) 세상을 구하는 비트코인 채굴
- 33) 채굴은 시스템의 강건성을 의미한다
- 34)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7가지 질문과 해제

맺으며

- 양자역학 고양이의 생존 여부에 대한 베이지안 추론
- '슈뢰딩어의 고양이" : 상자안의 고양이의 생존을 알려면 상자를 열어야만 알수 있다. 열기전에는 생사의 확률이 반반이다.